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비비안^{1,†} · 왕관군² · 문승현³

¹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뷰티아트케어학과, 학생

²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과, 학생

³디연 대표

(2024년 4월 23일 접수: 2024년 6월 15일 수정: 2024년 6월 18일 채택)

The effect of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Workers' on Presenteeism and Mental Heal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Rao JiaWen^{1,†} · Wang Guanqun² · Seung-Hyeon Mun³

¹Department of Beauty Art Care, Dongguk University

²Hansung University

³Director, Diyeon

(Received April 23, 2024; Revised June 15, 2024; Accepted June 18, 202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경기 뷰티 종사자 3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정규성 검증, 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델 및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은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및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 산업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뷰티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act of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workers on job burnout, presenteeism, and mental health and further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308 beauty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normality tests, confirmatory factor

[†]Corresponding author

(E-mail: vivien524@khu.ac.kr)

analyse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and mediation effec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bootstrapping.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worker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burnout, presenteeism, and mental health. Second, job burnou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risk factors and the presenteeism of beauty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industry workers and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beauty industry workers.

Keywords : Physical Risk Factors, Job Burnout, Presenteeism, Mental Health

1. 서론

뷰티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뷰티 종사자는 직업적 작업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화학물질을 다루어야 하고 [1], 주로 손을 이용하여 비정상적 자세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또한 뷰티 종사자는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일부 종사자는 불량고객 행동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3]. 뷰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박윤희[4]는 한국형 뷰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서 국내 뷰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구성개념을 직업병, 복리후생, 블랙진슈머, 직원 관계갈등, 봉급, 자기 개발, 감정노동, 사회적 인식, 성희롱, 매출 압박의 10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뷰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산업군의 선행연구에 비해 이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구성 요인의 수가 많다. 이러한 뷰티 종사자의 근무 환경, 직업 형태 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직무적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귀인 되기도 한다.

최근 소수의 연구에서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프리젠티즘(presenteeism)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생산성과 종사자의 건강에 관한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5], 대체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경제적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6]. 일반적으로 결근율(Absenteeism)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 현상은 종사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7]. 또 다른 해석으로는 종사자가 신체적 상태가 아픈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여 발생하는 생산성의 손실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8].

프리젠티즘은 아직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생소한 용어이며,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도 보건학, 간호학, 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9].

이상용[10]은 우리나라 직업군별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유발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프리젠티즘 현상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직업군,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조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노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리젠티즘 현상과 관련이 있는 직업군으로 이·미용 종사자를 지목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로 평균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동, 고온, 화학물질, 피부접촉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로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와 손, 팔 반복 동작을 하는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이 유발되며,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보고는 대부분 뷰티 산업 종사자가 경험하는 근로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들이다. 따라서 뷰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근무 형태는 프리젠티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사하게 이진화, 이복임[11]도 간호학적 측면에서 미용사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유해 작업 환경 요인

이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물리적 유해 환경이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명우, 김성남[12]은 미용실의 유해 작업환경이 종사자의 근골격계, 소화기, 눈, 피부와 같은 신체적 건강 상태뿐 아니라 정서불안, 우울, 신경성과 같은 정신건강 변인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석주[13]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리적 유해 환경이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산업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관련한 연구에서 프리젠티즘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변수로 직무소진을 지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직무적 손실을 증가시키고 직무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최근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5]. 이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젠티즘 현상이 직무소진을 유발한다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서로 다른 결론은 미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종사자는 상당히 힘들고 고된 직업군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고된 작업과 환경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프리젠티즘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 유일하게 뷰티 학문 분야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안미정[16]의 헤어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연구에서는 프리젠티즘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뷰티 종사자에게 프리젠티즘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어떤 산업보다 감정노동과 신체적·심리적 작업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뷰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젠티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뷰티 산업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현상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이 뷰티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간호학[17,18], 직업의학[19], 사회학[20] 분야에서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어떠한 매개 역할

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확립하였다.

- H1.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직무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뷰티 전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7. 뷰티 전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2023년 서울·경기 뷰티 관련 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뷰티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 선정과 함께 편의표집방식을 채택하여 뷰티 종사자 308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3일 동안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초 설문지는 340부를 투여하여 32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자 18부를 제외하여 최종 308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뷰티 관련 샵을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를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부 비대면 조사도 병행하였다. 비대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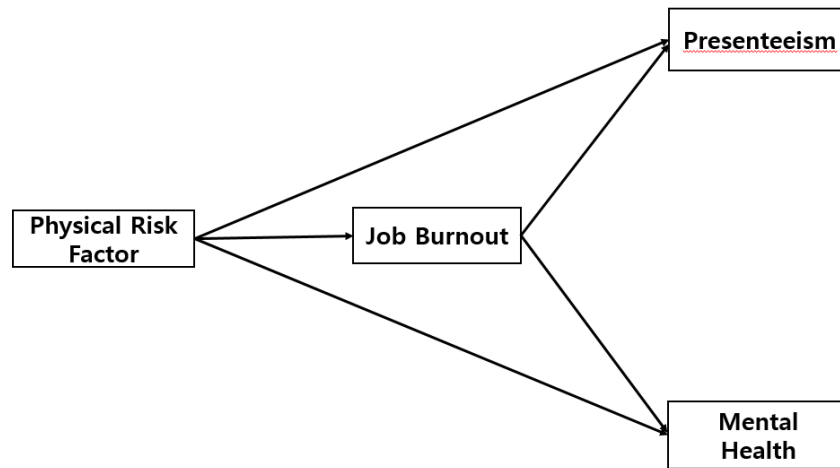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308)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s Year	36	11.7
	30's Year	116	37.7
	40's Year	120	39.0
	Than 50's Year	36	11.7
Service area	Skin	63	20.5
	Hair	123	39.9
	Nail	106	34.4
	Makeup	16	5.2
Position	step	51	16.6
	실장	124	40.3
	부원장/원장	115	37.3
	et al.	18	5.8
Career	1 year- less than 5 years	48	15.6
	6 year - less than 10 years	148	48.1
	11 year - less than 15 years	70	22.7
	over 21 years	42	13.6

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이메일 방법으로도 조사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척도는 먼저 뷰티 전

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 척도는 이진화, 이복임[21]의 물리적·심리적 작업환경 척도에서 물리적 작업환경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소진 척도는 김미정, 신수정[22]의 단일차원 5문항 직무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리젠테이션 척도는 박윤미[23]의 항공사 직원의 프리젠테이션 연구와 이정현[24]의 외식기업 종사자의 프리

젠티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부합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5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척도는 신성녀[25]가 미용사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19문항,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강박의 4개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테즘, 정신건강 척도 모두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업환경 장애, 직무소진, 프리젠테즘,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2.4.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먼저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version 2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분석, 첨도, 왜도)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Version 2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검증(SM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한 간접효과로 평가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AMOS Version

2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료의 정규성(Normality) 검증(sample)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수의 정규성(Norma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Mean), 표준편차(SD), 첨도(Kurtosis), 왜도(Skewness)를 산출하였다. 정규성 검증은 자료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고 측정 자료의 편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모수 추정 방법으로 자료의 정규성 여부가 사전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26]. (Table 2)은 측정변수들의 다변량 정규성 검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평균은 물리적 작업 환경은 3.79, 직무소진 3.93, 프리젠테즘 3.80, 정신건강은 3.61~3.76의 범주를 나타내었다. 또한 왜도는 -.415~.003, 첨도는 -.453~.147의 범주를 나타내었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27] 의하면 측정변수의 왜도는 ± 2 , 첨도 ± 4 범주 안에 있어야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며, 이 때 측정변수의 상관계수는 .8보다 낮아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

Table 2. Description Analysis and Normality Test

Variance	Physical risk factor	Burnout	Presenteeism	Mental health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Obsession
M \pm SD	3.79 .67	3.93 \pm .73	3.80 \pm .54	3.63 \pm .71	3.75 \pm .64	3.61 \pm .71	3.76 \pm .63
Skewness	-.251	-.415	-.135	-.066	.003	-.053	-.011
Kurtosis	-.007	.133	.039	.147	-.453	.107	-.013
Physical risk factor	1						
Burnout	.377**	1					
Presenteeism	.592**	.375**	1				
Physical symptoms	.477**	.271**	.596**	1			
Depression	.493**	.297**	.634**	.657**	1		
Anxiety	.534**	.298**	.597**	.740**	.784**	1	
Obsession	.500**	.250**	.592**	.671**	.787**	.778**	1

** $p < .01$

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제시한 지수를 토대로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측정자료들은 모두 정규성을 갖춘 자료로서 볼 수 있다.

한편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 작업 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불안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직무소진과 강박으로 $r=.250$, $p<.01$ 이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우울과 강박으로 $r=.787$, $p<.01$ 로 나타났다.

3.2.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가설로 세워진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차는 먼저 가설적 측정모델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때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CMIN(X^2/df)$,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CMIN(X^2/df)$ 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그 지수가 3보다 작을 때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CMIN$ 의 대인어로 RMR 지수는 .05이하, RMSEA은 .05-.08의 지수로 적합도 수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GFI, CFI, NFI, TLI, IFI 지수는 .90 이상을 보여야 한다[28,29].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는 .50미만의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모델 적합도가 만족되지 않으면,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이용하여 측정모델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향상시켰다. 세부적으로 수정지수를 확인하고 문항의 공분산과 측정오차를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을 한 문항씩 수정하고 매번 기준 모델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30]. 먼저 물리적 작업 환경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33.658$, $df=8$, $p<.001$, GFI=.963, CFI=.978, TLI=.958, NFI=.971, RMR=.022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603~.912를 나타내었으며, 평균분산추출 지수는 .703, 개념신뢰도 지수는 .9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소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측

정모델의 적합도는 $X^2=22.977$, $df=5$, $p<.001$, GFI=.970, CFI=.979, TLI=.959, NFI=.974, RMR=.016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745~.820으로 나타내었으며, 평균분산추출 지수는 .738, 개념신뢰도 지수는 .897로 나타났다. 프리젠티즘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13.145$, $df=2$, $p<.01$, GFI=.978, CFI=.975, TLI=.925, NFI=.971, RMR=.019으로 선행연구 수렴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척도에 대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272.032$, $df=94$, $p<.001$, CFI=.934, TLI=.916, NFI=.904, RMR=.034, RMSEA=.079를 보여 대부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집중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3. 가설검증

3.3.1.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339.384$, $df=147$, $p<.001$, $CMIN(X^2/df)=2.309$ 로 나타났다. CFI=.949, NFI=.950, TLI=.941, RMR=.037, NFI=.900, RMSEA=.065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31,32].

3.3.2. 가설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Table 5)은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무소진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검증 결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표준화회귀 계수(β) 값은 .419, $t=6.155$, $p<.001$ 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검증 결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638, $t=7.790$, $p<.001$ 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여 가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cale

Variable / item		λ	S.E.	C.R	AVE	α	
Physical Risk Factors	1	.912	.105	.933	.703	.904	
	2	.873	.152				
	3	.814	.244				
	4	.735	.310				
	5	.686	.372				
	6	.603	.348				
Model fit : Chi-square=33.658, df=8, p<.001, GFI=.963, CFI=.978, TLI=.958, NFI=.971, RMR=.022							
Job Burnout	1	.813	.206	.934	.738	.897	
	2	.745	.278				
	3	.807	.195				
	4	.820	.207				
	5	.804	.244				
Model fit : Chi-square=22.977, df=5, p<.001, GFI=.970 CFI=.979, TLI=.959, NFI=.974, RMR=.016							
presenteeism	1	.727	.292	.886	.661	.830	
	2	.745	.261				
	4	.713	.311				
	5	.781	.265				
Model fit : Chi-square=13.145, df=2, p<.01, GFI=.978, CFI=.975, TLI=.925, NFI=.971, RMR=.019							
Mental Health	Physical Symptoms	2	.691	.371	.817	.599	.768
		3	.757	.307			
		4	.722	.376			
	Depression	5	.731	.300	.869	.624	.824
		6	.708	.360			
		7	.730	.332			
		9	.779	.247			
	Anxiety	10	.716	.435	.869	.571	.848
		11	.732	.341			
		12	.654	.544			
		13	.794	.275			
	Obsession	14	.697	.351	.823	.539	.766
		15	.734	.308			
		16	.696	.345			
		17	.600	.460			
		19	.647	.428			
	Model fit : Chi-square=272.032, df=94, p<.001, CFI=.934, TLI=.916, NFI=.904, RMR=.034, RMSEA=.079						
	주) λ :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α =Cronbach's alpha						

Table 4. Model Fit Index

Chi-square	df	p	CMIN (χ^2 / df)	CFI ($\geq .90$)	NFI ($\geq .90$)	TLI ($\geq .90$)	RMR ($< .05$)	RMSEA (.05-.08)
339.384	147	.000	2.309	.949	.914	.941	.037	.065

Table 5. Hypothesis Test

	Hypothesis		β	S.E	C.R.(t)	Hypothesis adoption	
H 1.	Job Burnout	←	Physical Risk Factors	.419	.099	6.155***	accepted
H 2.	Presenteeism	←	Physical Risk Factors	.638	.102	7.790***	accepted
H 3.	Mental Health	←	Physical Risk Factors	.589	.093	7.805***	accepted
H 4.	Presenteeism	←	Job Burnout	.154	.050	2.634**	accepted
H 5.	Mental Health	←	Job Burnout	.102	.048	1.797	rejected

** $p < .01$, *** $p < .001$

2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의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작업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589, $t=7.805$, $p < .001$ 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154, $t=2.634$, $p < .001$ 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여 가설 4은 채택되었다.

가설 5의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102, $t=1.797$, $p < .001$ 로 통계적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가설 5는 기각되었다.

3.3.3. 매개효과 검증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가설 6, 가설 7).

검증 결과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65,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또한 95%의 신뢰구간(.018, ~.119)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31]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043, $p > .05$ 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4. 고찰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일련의 연구 절차를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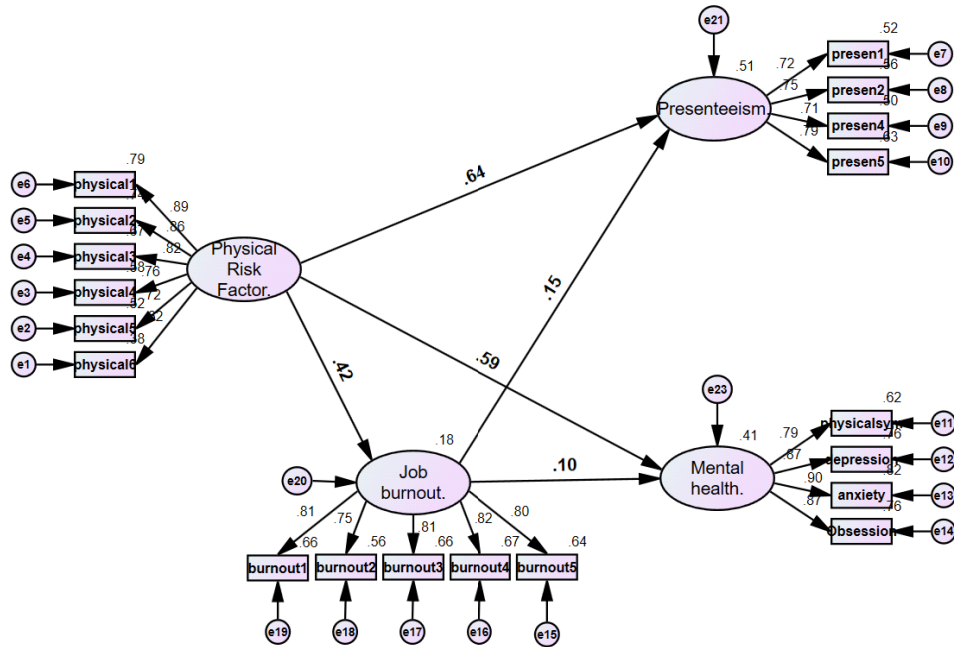


Fig. 2. Final Measurement Model.

Table 6.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H	path	β	SE	Boot LLCI	Boot ULCI	adopted
H6.	Physical risk factors → Presenteeism	.065*	.027	.018	.119	accept
H7	Physical risk factors → Mental health	.043	.026	-.005	.098	reject

* $p < .05$, Mediator=Job Burnout, Bootstrap sample size=5,000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본 연구의 결과들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 프리젠테즘,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뷰티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업적 작업환경이나 유해환경의 노출이 피부질환[32], 호흡기 질환 [33,34], 근골격계질환[35,36]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뷰티 산업의 유해환경이나 작업환경이 일부 방광암, 폐암 등과 같은 암을 유발하고[37],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등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38]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미용사들에게서 자연유산의 위험도가 증가하며[39], 과중한 피로도를 유발하는 작업이나 서서 작업하는 여성 군에서 조산 및 저체중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었다[40,41], 뷰티 산업 종사자 경우 대부분 여성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상당수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보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술한 뷰티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들은 다양한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에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 직업군에 속한다. 지속적 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강한 상관관계는 이미 동일하고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직종에서 직무소진은 과도한 직무로 인해 나타나는 피로와 좌절상태를 의미 한다[42], 이는 관련하여 김나영, 안미령(2019)[43],은 피부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강한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Belicki & Woolcott(1996)[44]은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업환경과 업무환경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직무소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뷰티 종사자는 화학물질과 진동기 취급, 장시간이 노동과 휴식의 불균형, 작업 자세에서 오는 통증, 직무적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등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작업환경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 요인들이 단순히 직무적 소진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뷰티 종사자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수의 연구에서 뷰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 변인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아 등(2002)[45]은 여성 미용사의 유기용제 노출이 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춘득(2005)[46]은 헤어, 네일,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종사자를 대상자 7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환경 유해 요인(염색약, 스타일링 제품, 피부관리 제품, 반복 업무, 불편한 자세, 진동공구)이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진화, 이복임[47]도 미용사의 반복적인 손과 팔의 어색한 자세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보조 미용사 보다는 디자이너나 실정과 같이 실제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보고는 본 연구에서 뷰티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48]를 토대로 뷰티 종

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물리적 작업환경과 유해 환경에 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노동 환경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뷰티 종사자의 작업환경이나 유해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에서 뷰티 종사자가 근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화학물질 노출, 오랜 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하는 장기간의 근무, 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열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근무 환경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행 연구들은 진동기 사용, 화학물질의 장기간 노출, 작업속도, 업무의 자율권, 언어폭력, 성폭력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진화, 이복임(2016)[49]은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동, 화학물질 노출, 작업속도, 자율권,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상용(2014)[50]도 직업상 취급하는 진동기와 화학물질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업무적 관점에서 업무의 불명확성과 역할 모호성도 프리젠티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5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와 상당히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가 전술한 업무적 위험 요소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도 말은 바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출근하고 업무를 지속[52]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뷰티 종사자는 고객과 장시간 감정노동을 경험해야 하고, 때로는 불량 고객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위험 요인들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을 더욱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프리젠티즘 위험성이 1.92배, 성희롱이 있는 경우 2.90배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53], 이러한 프리젠티즘 현상은 근로자의 개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54]이기 때문에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물

리적 작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감정노동을 증재할 수 있는 직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뷰티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프리젠티즘 연구에서 프리젠티즘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변수로 직무소진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육군 장교의 프리젠티즘에 관한 연구에서 육군 장교의 직무부담과 직무압박이 프리젠티즘을 유발하고 이에 직무소진의 통계적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55]. 또한 최근 이현지(2022)[56]도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비록 독립변수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술한 선행연구들이 모두 육군 초급장교와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무요구가 많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의 결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보다 타당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유해적 요인들은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였으며, 나아가 물리적 작업환경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권미운(2013)은 미용 종사자의 미용 업무 특성으로 인한 만성적으로 공통적 목인과 열악한 환경에 수동적인 조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으로, 미숙한 치료나 경미한 조치로 증상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조치들이 업무의 능률 저하, 만성적인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뷰티 종사자가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의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뷰티 종사자가 삶의 질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 방안과 실천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과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내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은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뷰티 종사자들의 유해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회·심리 변인들에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뷰티 산업의 작업환경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본 결과가 뷰티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J. H. Lee, B. K. Lee,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among South Korean Hairdress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5, No.4 pp. 290-299, (2016).
2. C. I. Kim,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sociopsychological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some hairdress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2).
3. E. J. Ma, "Development of the black consumer behavior scale perceived by hair expe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Gwangju, (2021).
4. Y. H. Park, "Development of Korean Beauty Employees' Job Stress Scale(KBEJ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2017).

5. D. M. Lack, "Presenteeism revisited. A comprehensive review", *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Journal*, Vol.59, No.2 pp. 77-89, (2011).
6. M. J. Kwon, E. S. Choi, "Presenteeism in clinical nurse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6, No.3 pp. 160-171, (2017).
7. M. J. Ahn, "Effect of hairdresser's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hairdresser's presenteeism",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8, No.4 pp. 493-504, (2020).
8. M. Miraglia, G. Johns, "Going to work ill: A meta-analysis of the correlates of presenteeism and a dual path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21, No.3 pp. 261-283, (2016).
9. H. J. Shin, "What makes sick workers go to work? A study of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presenteeism",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24, No.3 pp. 35-71, (2018).
10. S. Y. Lee,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presenteeism of the workers in South Korea - Focus on analysis of job classif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014).
11. J. H. Lee, B. K. Lee, Op. cit. pp. 290-299, (2016).
12. M. W. Kim, S. N. Kim,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of beauty shop on staff's health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Vol.15, No.2 pp 667-677, (2009).
13. S. J. Yoo,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musculoskeleta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e workers in hazardous work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2013).
14. N. Caverley, N. J. B. Cunningham, J. N. Macgregor, "Sickness presenteeism, sickness absenteeism, and health following restructuring in a public service organ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44, No.2 pp. 304-319, (2007).
15. K. R. Kim, S. E. Lee, S. H. M, "Relationship between presenteeism,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beauty workers: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41, No.2 (2024).
16. M. J. Ahn, "Effect of hairdresser's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hairdresser's presenteeism",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8, No.4 pp. 493-503, (2020).
17. J. H. Lee, B. K. Lee, Op. cit. pp. 290-299, (2016).
18. M. J. Ahn, Op. cit. pp. 493-503, (2020).
19. J. A. Halliday-Bell, M. Gissler, J. J. K. Jaakkola, "Work as hairdresser and cosmetologist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Occupational Medicine*, Vol.59, pp. 180-184, (2009).
20. M. Toerien, C. Kitzinger, "Emotional labour in action: Navigating multiple involvements in the beauty salon", *Sociology*, Vol.41, No.4 pp. 645-662, (2007).
21. J. H. Lee, B. K. Lee, Op. cit. pp. 290-299, (2016).
22. M. J. Kim, S. J. Shin, "A study on job burnout and job enthusiasm of hair beauty industry employee's: Based on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9, No.5 pp. 1250-1258, (2023).
23. Y. M. Park, "The effect of job demands and work flexibility of airline on cabin crew's presenteeism, burnout and job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7).
24. J. H. Lee, "The effect of change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perceived by restaurant managers on job demand, job burnout, presenteeism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20).
25. S. N. Si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stress on the anger expres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beauty professional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Unpublished

- doctoral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2017).
26. E. H. Le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n instrument 2: structural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and cross-culture validity/ measurement invaria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27, No.2 pp. 69-74, (2021).
 27. J. H. Kim, M. G. Kim, S. H. Hong, “*Writing a thesi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mmunication books, (2009).
 28. I. S. Lee, J. P. Lee, “Factor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sports and general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social support, grit, and career cal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27, No.6 pp. 273-284, (2023).
 29.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1990).
 30. E. H. Lee, Op. cit. pp. 69-74, (2021).
 31. J. S. Sh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beauty shops-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18, No.1 pp. 129-138, (2022).
 32. N. P. Khumalo, S. Jessop, R. Ehrlich, “Prevalence of cutaneous adverse effects of hairdressing: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Dermatology*, Vol. 142, pp. 377-383, (2006).
 33. G. Moscato, P. Pignatti, M. R. Yacoub, C. Romano, S. Spezia, L. Perfetti, “Occupational asthma and occupational rhinitis in hairdressers”, *Chest*, Vol.128, pp. 3590-3598, (2005).
 34. K. J. Sa, M. B. Kim, “Prevalence of ocular, dermatologic, and respiratory symptoms in hairdressers of Gumi c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14, No.3, pp.147-165, (2013).
 35. L. Bradshaw, J. Harris-Roberts, J. Bowen, S. Rahman, D. Fishwick, “Self-reported work-related symptoms in hairdressers”, *Occupational Medicine*, Vol.61, pp. 328-334, (2011).
 36. J. H. Mo, M. R. So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orking posture and environment estheticians on musculoskeletal disease”, 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17, No.3 pp. 241-249, (2011).
 37. A. C. Olsson, Y. Xu, J. Schuz, J. Vlaanderen, H. Kromhout, R. Vermeulen, “Lung cancer risk among hairdressers: A pooled analysis of case-control studies conducted between 1985 and 2010”,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78, No.9 pp. 1355-1365, (2013).
 38. J. A. Halliday-Bell, M. Gissler, J. J. K. Jaakkola, Op. cit. pp. 180-184, (2021).
 39. E. M. John, D. A. Savitz, C. M. Shy, “Spontaneous abortions among cosmetologists”, *Epidemiology*, Vol.5, No.2 pp. 147-155 (1994).
 40. L. J. Launer, J. Villar, E. Kestler, M. Onis, “The effect of maternal work on fetal growth and duration of pregnancy: a prospec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Obstet Gynecol*, Vol.97, pp. 61-70, (1990).
 41. A. M. Teitelman, L. S. Welch, K. G. Hellenbrand, M. B. Bracken, “Effect of maternal work activity on preterm birth and low birth weigh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31, pp. 104-113, (1990).
 42. J. H. Ok, P. R. Yook, “A study relationship among casino employees’s empowerment, self-leadership, commitment, customer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Focused on differences in causal effect applied by multi-level SEM model”,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13, No.4, pp. 123-145, (2010).
 43. N. Y. Kim, M. R. An, “Study on the work stress, burnout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f the esthetician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11,

- pp. 247–253, (2019).
44. K. Belicki, R. Woolcott, “Employee and patient designed study of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a chronic care hospital”, *Employee Association Quarterly*, Vol.12, No.1 pp. 37–45, (1996).
 45. S. A. Kim, E. J. Kim, W. S. Park, S. H. Jung,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hairdresser’s neuropsychiatric symptoms due to chronic organic solvent exposure”, *Korean Journal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14, No.1, pp. 13–22, (2002).
 46. C. D. Kim, “Affecting factors on job stress and health status of hair dress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2005).
 47. J. H. Lee, B. K. Lee, Op. cit. pp.290–299, (2016).
 48. Y. J. Lee, G. M. Noh, “Factor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 No.3 pp.173–183, (2020).
 49. J. H. Lee, B. K. Lee, Op. cit. pp.290–299, (2016).
 50. S. Y. Lee, Op. cit. (2014).
 51. Q. Zhou, L. F. Martinez, A. I. Ferreira, P. Rldrigues, “Supervisor support, role ambiguity and productivity associated with presenteeis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9, pp. 3380–3387, (2016).
 52. Y. S. Cho, J. B. Park, K. J. Lee, K. B. Min, C. I. Baek,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workers’ presenteeism and psychosocial factors within workplac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28, pp. 41, (2016).
 53. S. Y. Lee, Op. cit. (2014).
 54. P. Hemp, “Presenteeism: At work– But out of it”, *Harvard Business Review*, Vol.82, No.10 pp. 49–58, (2004).
 55. J. G. Kwak, H. S. Kim, “A study on the presenteeism of the army jun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12, No.4 pp. 261–291, (2019).
 56. H. J. Lee, “A correlate of job demands and presenteeism among social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13, No.3, pp. 2027–2036, (2022).
 57. H. J. Lee, “A correlate of job demands and presenteeism among social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13, No.3 pp. 2027–2036, (2022).